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153

박완서 창작집에 등장한 노년문학 연구*
—'심리학적 · 사회학적 노년학' 이론을 중심으로—

박 태 상**

요 약

대한민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드디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박완서는 2011년 작고하기까지 장편소설 20여 편과 단편소설 140여 편을 펴낸 소설가이다. 이중에서 노년의 삶과 서사를 다룬 단편소설로는 1970년대 6편, 1980년대 15편, 1990년대 10편, 그리고 2000년대 11편 등 총 42편으로 박완서의 단편소설 전체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편수가 많다. 박완서의 단편 중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창작된 작품인 「그리움에 대하여」(『현대문학』, 2001. 2)를 비롯한 6편을 대상으로 심리학적 · 사회학적 노년학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박완서 문학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질병을 앓고 있는 노년의 여성 화자를 등장시키면서 여성적 소통방법인 '밥과 음식 나눠 먹기'를 소통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멸과 생성의 상징인 붉은 노을, 불빛, 밝은 톤의 색채감(노란 은행잎이 푸른 잔디 위로 지는 곳, 섹시한 어부가 방금 청정해역에서 낚아 올린 분홍빛 도미, 자지러지게 붉은 단풍 등)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약물(비아그라 vs 양귀비)이나 몸살 · 독감 · 폐렴 등의 가벼운 질환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반복해서 병치하는 방법 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수사기교가 드러나고 있는

* 상기 논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2018년도 2분기 학술연구비〉 지원금으로 연구되었음을 밝혀둔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점이다.

여섯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박완서 노년문학의 특징은 크게는 '부정적 인식과 소멸하기'를 드러내는 글쓰기와 '긍정적 인식과 대안 모색의 글쓰기'로 대별된다. 첫째의 경우, ①세대 간 갈등(「촛불 밝힌 식탁」), ②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후남아 밥 먹어라」), ③배제와 편견(「대범한 밥상」), ④상실과 무력감(「그리움을 위하여」), ⑤폭력적인 성적 욕망과 인고의 삶(「친절한 복희씨」), ⑥기억과 망각(「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의 사회적 문제성을 던져주는 비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둘째, 작가 박완서는 노년문학을 통해 삭막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하지 않고 노년의 '모범적인 노후설계'(「촛불 밝힌 식탁」, 89쪽)에 대한 대안도 모색한다. 그러한 방법론으로는 ①황혼의 성숙한 통찰을 통한 자아의 정체성 획득, 즉 실존성 확보, ②관계 단절과 소외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관계 맺기와 손잡기'라는 소통의 방안 추구, ③자연과의 친화성을 통한 생태학적 인식, ④모성적 생명력의 한계와 상생 도모, 즉 '순응과 상생'의 세계관 모색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에 주로 출간된 박완서 노년문학은 이전의 '망각과 기억하기'를 토대로 한 '회상과 분노의 글쓰기(증언하기)'를 벗어나 '거듭된 회상의 글쓰기' 단계에서 '포용의 글쓰기'를 거쳐 '상생의 글쓰기'로 지평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어: 고령사회, 박완서의 노년소설, 부정적 인식과 소멸하기, 긍정적 인식과 대안 모색, 포용의 글쓰기, 노년문학, 심리학적 노년학 이론, 해빙허스트 발달과업이론, 사회학적 노년학 이론, 활동이론, 지속이론, 생애과정이론, 건강한 노화,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행, 실존성 확보, 마음의 평화 획득, 상생의 글쓰기, 모범적 노후설계, 자연과의 친화성을 통한 생태학적 인식

목차

1. 머리말
2. 노년문학의 개념과 박완서 노년문학의 특성
3. 방법론 모색과 2000년대 박완서 단편에 나타난 노년서사
4. '심리학적 요인' 관련 노년의 특징
5. '사회학적 요인' 관련 노년의 특징
6.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인구증가는 거의 멈추어 섰으며,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 것이 뻔하며, 노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3천619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0.3%(11만6천 명) 줄었다. 총인구는 5천1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15만 명) 증가하는 데[1] 그쳤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

1) 「연합시론」 〈'인구 절벽' 본격화, 체계·장기적 대책 필요하다〉(『연합뉴스』 2018년 8월 27일)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한국도 마침내 '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에서 확인됐다. 그간 우려됐던 '인구 절벽'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천 명(전체 인구 대비 13.3%)으로 전년 65세 고령 인구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격차를 약 50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도 107.3을 기록해 전년의 100.1보다 7.2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7로 1년 전보

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하고, 14% 이상인 경우를 '고령사회'로 명명하였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드디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2]로 들어섰다.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11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2%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첫 '고령 사회' 진입을 알렸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추세다. 고령화가 급속하다는 일본의 사례인(1970~1994년) 24년보다 7년이나 빠르니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제 언론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고령사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다양한 통계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여러 가지 생각도 못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가족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는 노인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동안 가족의 범주 안에서 노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고 가족들의 돌봄과 봉사로 노인문제는 가족 밖으로 흘러나오

다 1.0포인트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이 나라에 미칠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우선 생산과 투자, 소비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연간 0.1% 감소하면 ▲연평균 투자 0.96% ▲노동 0.22% ▲총 요소 생산성 0.07%가 각각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고 한다. 보고서대로라면 이 연령 인구가 0.3% 감소한 지난해 한국 GDP의 0.9%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적 보험의 고갈도 염려된다."

2)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고령사회의 이해-노년과 사회』, 소화, 2010년, 11면.
"UN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14%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가 되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04).

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1970~80년대부터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그리고 출산기피, 보건의료기관의 증대는 노인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과 같은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자, 세대 간의 갈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늦어지게 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도입을 서둘렀으며, 노인을 돌보는 부담을 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문학작품 창작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1990년대부터 노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최일남, 한승원, 이청준, 김원일, 박완서, 박범신 등의 작가들이 사회적인 현상과 연관된 노년문학을 많이 내놓았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여성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여성노인들'을 화자로 등장시키는 소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시대상황을 형상화하는데 앞장섰던 박완서가 이러한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추세로 생각된다. 이번 논문에서는 박완서의 단편 중 '고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2000년대에 창작된 단편소설 6편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학적·사회학적 노년학이론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분석해보기로 한다.

2. 노년문학의 개념과 박완서 노년문학의 특성

최근으로 올수록 '노년문학'이란 용어가 한국문학을 다루는 관련

학회에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용어로 굳어지기 전까지, 노인문학・노인성문학・노년의 문학・노년학적 소설・노년문학 등 실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우선 이재선은 "노년학적(gerontic) 소설이란 필자가 명명한 용어로서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포괄적으로는 노년의 삶, 즉 삶의 적극적인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거나 물러나 있는 노인들의 세계를 다룬 소설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협의적으로 도시소설의 한 종속장르로서 규정할 경우에는 사회 변동기에 있어서 노년의 도시생활 및 도시화와 연계된 삶을 대상으로 묘사하는 소설이다."[3]라고 '노년학적 소설이란 용어를 거명하면서 박완서의 「울음소리」를 예로 들었다. 김윤식은 '노인성 문학'이란 용어를 제안했다. 그는 "첫째, 65세 이상의 작가가 쓰는 작품을 노인성 문학(A형)이라 규정한다. 이속에선 노인 문제도 청년 문제도 다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그의 인식은 노인성의 사정거리 안에서 진행될 터이다. 둘째, 65세 이하의 작가들이 노인성을 소재(주제)로 다루는 경우를 노인성 문학(B형)이라 규정한다. 이 경우는 당연히 자발적인 개성에 의한 선택이기에 공리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 원리적으로 본격문학인 셈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A)형과 (B)형에 걸쳐 있다."[4]고 하면서 박완서의 「마른꽃」(1995)을 거론했다. 김병익은 '노년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말하는 노년문학은 그냥 작가가 노년이라는 것, 혹은 단순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인이라는 것 이상의 것으로, 노인이기에 가능한 원숙한 세계 인식, 삶에 대한 중후한 감수성, 이것들에 따르는 지혜와 관용과 이해의 정서가 품어져 있는 작품 세계를 드러낼 경우를 말한다."[5]고 설명했다.

3)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1945~1990), 민음사, 1991년, 288면.
4)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년, 249면.
5) 김병익, 「험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박완서의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 지성사, 2007년, 285면.

최근의 박산향은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노년소설은 실질적으로 노년의 생을 살고 있는 작가의 노년담론을 이상적 모델로 삼지만, 비노년기 작가가 그만의 작가적 시선으로 담아낸 노년담론 역시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작품에서는 노년의 인물이 주동인물을 맡거나 갈등의 주요 당사자가 된다"[6]고 요약적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학자들의 개념논의를 검토해볼 때, 노년소설은 협의의 개념으로, 65세 전후의 노인[7]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변화하는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밀려나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고통을 겪고 노환까지 앓아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는 현상을 반어적으로나 풍자적으로 다루되,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병리적 현상 속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대안을 스스로 생각하게 해보는 서사적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노년문학은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노인 주인공들이 공동체 사회에서 부딪치면서 취하게 되는 부정적 인식태도와 실존성 회복 등 긍정적 인식태도 모두를 다루는 서사적 이야기를 의미한다.

박완서는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서 『나목』이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한 이후 2010년 유작으로 단편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를 내고 2011년 작고하기까지 장편소설 20여 편과 단편소설 140여 편을 펴낸 소설가이다. 그동안 박완서가 창작모티브로 주로 다룬 것은 1)6.25 전쟁과 분단문제, 2)시대현실의 해부

6) 박산향,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8년, 349면.

7) 『연합뉴스』 2018년. 10월. 7일자, "65세 은퇴 예상했지만 실제는 57세…최소 생활비 198만원"
"삼성생명〔032830〕 은퇴연구소가 7일 발표한 '2018 은퇴백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5~74세 2천453명 중 비은퇴자 1천953명이 꼽은 은퇴 예상 연령은 평균 65세로 나타났다. …… 은퇴자들은 평균 71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인식했다. 비은퇴자들이 꼽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69세 이상이었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60세를 노인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1명도 없었다."

와 비판, 3)노년의 삶과 서사, 4) 페미니즘과 모성적 생명의식으로 유형화[8] 되었다. 이중에서 노년의 삶과 서사를 다룬 단편소설로는 1970년대 6편, 1980년대 15편, 1990년대 10편, 그리고 2000년대 11편 등[9] 총 42편으로 박완서의 단편소설 전체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편수가 많다. 그만큼 작가 박완서 자신이 노년의 삶을 살면서 겪는 현실적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실존성 회복의 지난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10여 명의 학자들이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10] 그 결과 대체적으로

8) 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한국문화기술』 제 15호, 2013년, 88면.

9) 박산향, 앞의 글, 349면.

10) 오준심・김승용,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갈등 연구」, 『한국노년학』, 29권 4호, 2009년.
정미숙・류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제 54집, 2010년.
전흥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Ⅱ), 『국어문학』 제49집, 2010년.
김영택・신현순, 「박완서 노년 소설 연구-동거자와 여성 노인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68집, 2011년.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2년.)
송명희, 「노년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박완서의 「마른꽃」을 중심으로」,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년.
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한국문화기술』 제 15호, 2013년.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 -「저문녘의 황홀」, 「석양에 등을 지고 그림자를 밟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6집(19권 1호), 2015년.
김미영, 「한국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 - 최일남, 박완서, 이청준, 홍상화, 김원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 64호, 2015년.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 70집, 2015년.
김보민,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성 - 김원일, 박완서, 한승원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2017년.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김원일, 최일남, 박완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9권 제2호, 2018년.

박완서의 노년문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노인의 실존을 탐색해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서술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11]로 요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방법론 모색과 2000년대 박완서 단편에 나타난 노년서사

시몬 드 보부아르는『노년』서문에서 "오늘날 프랑스에서도 늙음은 역시 금지된 주제이다.『사물의 힘』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그 금기를 깨뜨렸다. 그때 그로 인해 야기된 항의의 소리란! 나는 내가 노년의 문턱에 서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친절하게 혹은 몹시 화를 내면서 내게 똑같은 소리를 수없이 되풀이 했다. '노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젊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라고. 우리 사회는 노년을 마치 일종의 수치스러운 비밀처럼 여긴다."[12]고 술회하면서 노인들은 자신들을 늙었다고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했다. 보부아르는 이어서 마르쿠제가 소비사회는 불행의 의식을 행복의 의식으로 대체시켰다고 말했는데, 그러한 "팽창과 풍요의 여러 신화 뒤에 몸을 숨기는 그 무사태평한 의식은 노인들을 천민계급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보부아르는 당대의 프랑스는 노인 인구분포율에서

박산향,「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인문사회과학연구』제19권 제2호, 2018년.

11) 박성혜, 앞의 글, 89면.

12) 시몬 드 보부아르,『노년-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 책세상, 2002년 개정판, 8면.

세계 최고-전체인구의 12%가 65세 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노인들은 가난과 고독, 불구, 그리고 절망의 형을 언도받았다."[13] 고 모멸적으로 말했다. 보부아르의 언급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노년의 삶은 천민계급의 삶 그 자체이며, 가난, 고독, 절망의 삶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렸다. 이러한 보부아르의 1970년대 유럽에서의 경고와 진단은 2018년의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에 대한 주된 이미지는 육체적 정신적 쇠퇴 및 의존 등과 관련되며, 그리하여 노인은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유교의식이 강했던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아왔고, 그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는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1970~80년대의 급속도로 변하는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효와 경로사상은 약화되고, 아파트문화와 핵가족제도로의 빠른 변화는 노인의 지위와 권위를 약화시켰다.

맥타비쉬(McTavish, 1971)와 뉴셀(Nuessel, 1982)의 연구결과에서도 노인은 일반적으로 '피곤하며, 아프고,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느리고, 잘 잊어버리며,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잔소리가 많으며,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안됐다고 여기며,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며,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며 방어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비숍과 크라우즈(Bishop & Krauses)는 노인들은 소설, 잡지, 만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우매하고, 엉뚱하며, 슬프고, 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Johnson, 1985)[14]. 이러한 미국에서의 연구결과는 언

13) 시몬 드 보부아르, 위의 책, 9면.

14) 조성남, 『에이지붐 시대-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대출판부, 2004년, 92-93면.

론매체와 광고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면 노인들을 노화로 이끄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심리학적[15]·사회학적[16] 노년학이론으로는 어떠한 방법론이 있는가? 다양한

---

15) 심리학적 노년학이론으로는 1)에릭슨의 심리사회발전단계이론, 2)펙의 발달과업이론, 3)해빙허스트의 발달과업이론, 4)클라크와 앤더슨의 적응발달과업이론, 5)밀러의 정체감위기이론, 6)애췰리의 정체감유지이론, 7)퀴퍼스와 뱅트슨의 사회적 와해이론 등이 있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서 여성화자의 심리적 성격과 갈등요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는 3)의 발달과업이론과 6)의 정체감유지이론의 융합이론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외성, 『노인복지학신론』, 양서원, 2010년, 42면.

"에릭슨의 이론을 참조한 펙의 발달과업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심리학적 노년학이론이 바로 해빙허스트(Havighurst, 1972)의 '발달과업이론'이다. 해빙허스트는 생의 발달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면 행복해지고 다음 단계의 발달과업도 잘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불행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고 보았다. 해빙허스트가 제시한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①쇠약해진 신체적 여건에 대한 적응, ②퇴직과 경제적 수입 감소에 대한 적응, ③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④동년배 집단과의 유대관계 강화, ⑤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한 적응, ⑥노후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및 적응이다."

16) 인간의 노화는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노화가 사회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노화에 관련된 여러 사회학적 이론들이 제창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회의 구조와 노인 개인, 노인의 역할과 사회적 적응, 노인집단과 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1)연령계층화 이론, 2)하위문화이론, 3)현대화이론, 4)분리이론(사회유리이론), 5)활동이론, 6)지속이론, 7)생애과정이론, 8)교환이론, 9)정치경제학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학적 방법론 중에서 박완서 작품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이론으로는 5)활동이론, 6)지속이론, 7)생애과정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융합이론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외성, 위의 책, 44-46면.
조성남, 앞의 책, 126-133면.

"교환이론으로서 "로소우(Rosow, 1974)는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는 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 노인이 수행하는 기능, 사회적 조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요인이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①재산 소유 및 통제권의 약화, ②노인

방법론 중에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만을 추려 각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적·사회학적 노년학의 방법론으로 박완서의 2000년대 밀레니엄시대에 창작한 11편중에서 단편소설 6편을 대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보기로 한다. 박완서의 사망 직전 10년치에 해당하는, 창작된 작품만을 작품텍스트로 삼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대로 통계청 자료발표대로 2000년에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7년에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4. '심리학적 요인' 관련 노년의 특징

두 가지 방법론의 공통지표로 작품의 '화자 시점'과 '주제', 그리고 '질병'을 삼기로 한다. 박완서가 2001년 2월『현대문학』에 발표한「그리움을 위하여」는 노년의 여성화자인 〈나〉가 함께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전적으로 돌봐주고 있는 사촌여동생의 행동양태를 살펴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사구조를 지닌다. 질병으로 〈나〉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전담했던 남편과 사별한 후 노후의 삶이 흔들거렸으나 사촌여동생이 집안일을 챙겨주면서 안정감을 찾아간다. 이 작품에서 〈나〉와 사촌여동생은 큰 질병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다만 두 여성노인 모두가 남편을 질병으로 잃은 과부라는 공통점이 있다. 작

지식의 낙후, ③노인의 종교적 전통에의 연결약화, ④핵가족화, ⑤노인의 생산성 약화, ⑥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성 약화, ⑦상호의존성의 약화이다. 이러한 노인의 교환자원 부족, 가치성의 저하, 혹은 고갈 등은 노인을 집단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데 열세를 면치 못하는 지위로 하락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환자원의 가치 저하는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권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품주제는 여성화자인 〈나〉가 사촌여동생이 여름 바캉스로 남해의 민박집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아서 집안일이 엉망이 되어감에 따라 짜증과 조바심을 내지만, 결국 사촌여동생이 추구한 새로운 노년의 생애설계가 건강한 의식을 지닌 성공적 노년을 보내기 위한 모험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생태학적 인식'과 '새로운 노년생애설계의 실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노년학의 '일곱 가지 심리기제'들을 여섯 편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해보기로 한다. ①우울증(내향성) 성향, ②생에 대한 회상, ③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④본능적 욕구(식욕, 성욕, 활동욕), ⑤경직성과 조심성, ⑥의존성 증가(소외, 무력감), ⑦사회적 역할 수행(노년기의 생활목표 과업)을 핵심 분석 자료로 삼아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사실 7가지 심리기제는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움을 위하여」의 〈나〉는 남편의 죽음과 홀로서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으므로 막상 그러한 현실이 닥치자, 허둥대고 불안감으로 ①우울증 증세를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에 대해 회상해보면서 자신이 과부가 된지 불과 3년 만에 사촌여동생도 과부가 되는 우연성을 목도한다. 친근한 사촌여동생에게 점차 애정을 베풀면서 그녀를 잡아두려고 노력한다. 〈나〉는 자신의 식습관을 고수하면서 ⑥생활의 리듬이 깨어질까 조바심을 내며 더욱 사촌여동생에게 의존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내면에서 이중성을 느낀다. 자신의 리듬을 지켜내려는 심리와 모험적이고도 도발적으로 사회적 여할을 수행해나가는 사촌여동생에 대한 동경이 내부에서 오버랩 된다.

같은 성향을 드러내는 3작품을 묶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대범한 밥상」(2006)의 〈나〉는 건강한 남편이 췌장암으로 죽은 후 자신에게도 유방암의 암세포가 번져 3개월이라는 시한부인생을 살아가

는 노년여성화자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회계사 남편의 재산인 땅을 삼남매에게 나름 공평하게 분배했으나, 자식들 간에 갈등이 파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③〈나〉는 자신의 아파트 등 남은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까 고민에 빠져든다. 후반부는 시름을 잊으려 찾아간 고교동창 모임을 통해 유교적 전통 윤리를 거슬러 왕따를 당하고 스캔들에 휩싸인 절친 경실을 찾아 시골의 C읍을 찾아가서 놀라움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나〉는 재산분배 후 갈등을 빚는 삼남매의 행태를 보고 ①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②남편의 땅 분배와 삼남매의 갈등 빚는 과정을 회상해보며 시름에 젖는다. 따라서 ⑤〈나〉의 생활은 위축되고 조심성의 행동을 드러내 사업에 망한 막내딸부부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하는 생각도 머리에서만 맴돈다.

그러나 암환자인 ⑦〈나〉의 반전은 절친 경실을 찾아 나서는 결단으로부터 일어난다. 자신에게 친근한 영화 〈데미지〉를 보거나 일상성에 몰입해 봐도 씻어지지 않던 불안감이 경실을 만나자마자 접한 그녀의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인식의 전환을 보이는 세계관에 어느덧 빠져든다. 〈나〉는 경실이 내놓는 시골채소인 짠지, 씀바귀, 그리고 곤드레 나물에 매혹되어 식욕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드러낸다. 그동안 누구나가 모두 거부반응을 드러내보였던, 경실의 홀아비인 사돈영감과의 변태적 동거에 대한 술회에 기대지평이 무너지지만, 종국에서는 지평의 전환을 이루어 친숙한 지평으로 다가서게 된다. 「대범한 밥상」은 작가 박완서가 '대범하게' 사회에 던지는 노년생애 설계의 새로운 비전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 인간의 실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충격적인 방안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는 박완서의 유작으로 2010년에 집필한 회고체의 소설이다. 사실상 자전적 소설인 이 작품의 여성 화자인 ①〈나〉는 중첩되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에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나〉는 유아기의 충격적인 죽음체험과 중년기의 또 다른 죽음체험에 생의 마지막 20년을 허둥대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작품에서 질병으로는 남편의 노환에 의한 죽음과 연이은 유일한 아들인 막내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이 나온다. 포근한 남편의 죽음에 이어 닥친 참척의 아픔과 고통은 여성화자인 〈나〉에게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심리적 트라우마(trauma)'를 던져준다. ②6.25의 잔혹했던 죽음의 공포는 증언의 글쓰기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중·노년기에 밀려든 현실적 고통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산층 삶의 평탄함과 편안함이라는 정서를 송두리째 뽑아버렸고, ⑤그에 따라 삶은 경직되고 조심성에 머물지 않고 공허감과 정신적 상실감으로 뒤덮인다.

이러한 무력감을 씻어내려고 ⑦글쓰기와 빈번한 해외여행을 통해 운명을 회피해보려고 〈나〉는 노력해 보지만, 목적 없는 해외여행에서 몸만 축나고 상실감만 더욱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답게 작가의 분신인 여성화자 〈나〉는 지치고 끝없는 해외여행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고래뱃속에서의 반복된 헤맴'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마음의 평화와 소중한 큰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작가가 사회에 대해 마지막으로 던지는,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의 주제는 생애과정의 인식을 통해 찾은 일상적 삶에서의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후남아 밥 먹어라」(2003)는 다른 작품텍스트와 달리 '앤'이라는 재미교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정을 3인칭 관찰자시점으로 바라보는 노년서사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질병은 어머니의 '치매'다. '앤'의 한국이름은 딸을 그만 낳고 아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한국이름인 '후남'이다. '앤'은 다른 두 딸과 달리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지만, 소개팅으로 유복한 재미교포와 결혼해 이민을 떠남으로써 삶의 반전을 이룬다. 하

지만, 도피에 가까운 이국생활에서 그녀는 ①정체성의 위기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다. 그녀의 미국에서의 일상적 삶은 한국인으로서의 식습관과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⑤'경직성과 조심성'의 행태를 보임에 따라 점차 소외감이 커져가고 ⑥친척이나 어머니에 대한 상념 등 '의존성'만 깊어간다. 따라서 '앤'이 취하는 행동은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친근한 사물인 친척에게 미국 최신 선물 보내기와 태평양에 가까운 해변으로 피크닉을 떠나는 일이다.

결국 치매 어머니의 임종에 임박해 찾은 ⑦고국여행에서 '앤'이 느낀 생의 최고의 쾌락은 어머니가 불러주는 유일한 한마디 말인 '후남아 밥 먹어라'의 호명에서 자신을 어머니가 인지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어머니라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회복은 그동안 '앤'이 잃어버리고 있던 정체성을 순식간에 획득하게 해주는 쾌거를 이룬다. 「후남아 밥 먹어라」의 주제는 고향 찾기를 통한 노년의 여성화자의 정체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성년을 지나 맞게 된 노년적 삶은 신화세계의 영원, 반복의 순환 사이클처럼 유아기로의 회귀이자 자연과의 상생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촛불 밝힌 식탁」(2005)은 중소도시에서 초교 교장을 정년퇴임한 남편인 ①〈나〉가 아들을 대학교육까지 마치게 하고 결혼까지 시키면서 작은 아파트를 직접 마련해주었으나 막상 시집온 며느리는 그러한 시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망각한다. 〈나〉는 퇴임 후 서울 강남의 큰 아파트를 사서 함께 3대가 동거하는 대가족 공동체사회를 꿈꾸지만 며느리의 야멸찬 거부의사로 그러한 꿈을 단념하고 학군이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앞·뒤 동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한다. 〈나〉는 "서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산다는 건, 바쁜 자식과 할 일 없는 늙은이한테 이보다 더 좋은 소통 방법이 없을 것 같구나."[17]라고 위안을 삼지만, 현실은

당돌한 며느리에게 농락당하는 '노인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전 교장 선생으로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는 퇴임 후 며느리의 예상 못한 홀대에 의기소침해지고 움츠러들게 된다. 아울러 ②생을 회고하면서 아들 며느리의 괘씸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만, ⑦동창모임에 가서 세상이 변한 것에 대해 탄식을 하는 것 외에 달리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다.

⑤〈나〉와 아내는 '청국장'과 '김칫국'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한 토속음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는 반면 며느리는 부모와의 회식에서 자주 퓨전음식을 꺼내놓아 갈등을 빚는다. 아들을 생각해서 된장국 등을 끓여 앞 동의 아들-며느리 내외에게 배달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별식을 가져가는 예정일에 며느리아파트에 불빛이 꺼져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 좌절감을 맛본다. 〈나〉는 정체성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점차 아내에게 의존성을 높여가고 인형 양초를 구입해 늙은 노부부 둘만의 식탁을 준비하는 동시에 고교동창모임에 참여해 세태가 변해가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수동적인 자세만을 보인다. 「촛불 밝힌 식탁」에서 작가는 박완서 특유의 사회적 문제점을 꼬집고 풍자하며 '노인홀대'와 '노인소외'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의 현상을 유머러스하게 되짚고 있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친절한 복희씨」(2006)는 다른 노년문학과 달리 사회의 허위와 위선, 그리고 악덕을 여성화자의 입장에서 폭로하는 작품이다. 선악이 구별되지 않은 채 악덕이 횡행하던 시절에 버스차장이 되기 위해 상경한 여성화자가 방산상회의 점원 및 식모가 되어 점포주인의 성폭력과 강간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 끝에 그와 결혼하여 평생 동안의 폭력성에 시달리면서도 오남매를 교육시키며 자신을 희생하는 1

17) 박완서, 「촛불 밝힌 식탁」, 『촛불 밝힌 식탁 - 박완서 외 여성작가 17인 신작소설』, 동아일보사, 2005년, 89면.

인칭 주인공 시점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질병으로는 ① '중풍'과 남편의 성폭력에 시달리는 아내인 〈나〉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나온다. 「친절한 복희씨」의 주제는 주인공 '내'가 느끼는 왜곡된 삶에 대한 회한과 변태적 성욕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방산상회 점원 겸 식모로 수난을 겪으면서도 ②오직 자녀들을 고등교육을 시켜 보상을 받으려는 일념으로, 인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생에 대한 회상'으로 담담하게 묘사한다. 〈나〉는 오직 돈을 벌어야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자녀교육에 매진할 수 있으므로 ⑤남편의 변태성욕에 응대해주는 '경직성과 조심성'의 태도를 견지한다. 따라서 ⑥자신을 학대하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의존성'의 모순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생활목표인 자녀의 대학입학 등 성취를 이루지만, "요렇게 싸가지 없는 (둘째) 며늘년"[18] 때문에 우울증의 증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나〉에게 급작스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 남편이 중풍에 걸려 대소변을 못 가리고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어느 정도 혼자서 산책을 다닐 정도로 중풍증세가 차도가 있게 되자 ④다시 본능적 요구인 성욕(비아그라를 구입하려 시도함)을 드러내자 〈나〉는 친정에서 가지고 나와 감추어 두었던 생철갑(일종의 고약형태의 마약/독약)을 확인하다가 ⑦한강다리로 올라가 남편을 껴안고 강물로 뛰어드는 환각에 젖는다.

18)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 지성사, 2007년, 245면.

번호	작품(발표연도)	시점	주제	질병	우울증(내향성 성향)	생에 대한 회상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본능적 욕구(식욕/성욕/활동력)	경직성·조심성	의존성(소외/무력감)	사회적 역할에 대한 죽음의식(노년기의 생활목표과업)
1	「그리움을 위하여」(2001.2 현대문학)노년여인의 로맨스)	1인칭 관찰자	생태학적 인식 ·성공적 노년 ·새로운 생애설계	<나> 남편죽음 vs 사촌여동생 생태학적 삶	<나>의 우울증, 불안	과부가 된 지 삼년 후 사촌여동생과 부	사촌여동생에 대한 애착	사촌여동생의 성욕(연애)	식습관 고수 조심성	남편사망 후 소외감·무력감 사촌여동생에 의존	사촌여동생 생애설계 사회적 역할 수용
2	「후남아 밥 먹어라」(2003. 여름 창작과 비평)	3인칭 관찰자	재미교포 딸 ·노년의 정체성 찾기(고향 찾기)	어머니 치매 <후남이>정체성 확인	정체성 위기 우울증 130쪽	앤은 어머니 아버지 회상	한국 친척에게 선물보내기 ·태평양 쪽 피크닉	치매 어머니=밥소동 어머니의 유아기적 본능=정감어린 실체	·언제나 병자 취급. 그녀를 피곤하게 함	이국생활의 소외감 ->친척·어머니에 대한 의존성	어머니 한마디에 정체성 획득
3	「촛불밝힌 식탁」(2005. 동아일보사)	1인칭 관찰자	·자녀와의 갈등 ·노인 소외	<나> 교장 퇴직 상실감·무력감	아들·며느리의 홀대(동거요구)	90쪽 아들·며느리보며 변한 세상 절감	·동창회 마누라 ·아들네로 된장찌개 등 음식 나르기	전통음식에 대한 정감vs 며느리 퓨전요리 갈등	점차 아들네 불빛 관찰 조심성	<나> 아내에 대한 의존성(양초 구입)	고교동창모임, 부부참석 앞뒤동으로 아파트 이사
4	「대범한 밥상」(2006.1 현대문학)	1인칭 관찰자	생태학적 인식 ·자연과의 친화 ·새로운 주체성 인식	소멸과 생성 <나> 암말기 남편 췌장암 사망 동창 경실/인식전환 통한 생애설계	재산 분배 후 자녀 갈등 보고 우울증	·남편과 갈등의 삼남매 관찰	·영화 <데미지> ·여고동창 경실 보고싶음	·식욕(군둥내 짠지/곤드레나물) 경실 만남	·남편의 생전 땅 분배(3남매)갈등 보고 <나> 위축됨	·자식 갈등 소외->여고동창+경실	경실의 생태학적인식과 생애설계에 감탄(인식전환)
5	「친절한 복희씨」(2006. 창작과	1인칭 주인공	·왜곡된 삶에 대한 회한	<나> 성폭력 희생자 vs중풍 남편	"싸가지 없는 둘째 며늘년"	·경실 집가 며저 승의	·자녀들의 대학 진학=대리충	·남편의 변태성욕 ·중풍-비아그	남편 중풍 걸리기 전 -욕망분	·중풍 이전(소외/무력감)	·자녀 교육 ·쾌락 대학생 짝사랑

	비평)		· 변태적 성욕 분노표출		때문에 우울증	생각 방산상 회 점 원 겸 식 모 결 혼 (강간·임신)	족 · 금 속 갑 (생 철 갑) (까 만 고약)	라	출기역 할 (사 업번창 = 성욕 충족) 명 령 – 순종		박태기 나무
6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2010,『기나긴 하루』)	1인칭 관찰자	·마음의 평화 · 생에 과 정 인식 삶=(고래뱃속 헤맴)	남 편 죽음 < 나 > 상실감·무력감 해외여행	2대에 걸 친 죽음의 공포–> 우 울 · 불안 무기력	·6·25의 잔혹한 죽음에 대 한 증 언 욕구 · 결 혼 과 다 섯아이 교육	· 글 쓰 기 ·여행 운명회 피 목적없는 20년의 여행	· 글 쓰 기 욕 구	· 중 산 층 삶의 순탄 함 습관–> 공허감/상실감	· 남편 · 아들의 죽음–>무력감	· 죽 음 의 식 통 해 마음의 평화+큰 사 인 식

〈도표1〉 심리학적 관련 특징

지금까지 분석한 심리적 요인 관련 특성을 도표로 그린다면 아래와 같다.

(다)건강한 노화/새로운 생애설계

(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행

(가) 소외·불안감 등 노년의 부정적 관념 해소

〈도표2〉 '심리학적 요인' 관련 특성

위의 도표에서 (가)는 여성화자가 우울증과 의존성을 초탈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색하는 행동이지만, 현실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뒤따른다. (나)는 여성화자가 정체성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작품에서 대체적으로 ①소통의 '타자' 확보, ②고교동창 모임 참석, ③자녀교육에 매진 및 한계 인식, ④황홀한 로맨스 실험 등이 모색된다. (다)는 여성화자가

실존성과 자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작가 박완서가 독자에게 새롭게 던져주는, 모험적이고 도발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생애 설계 방안인 것이다.

종합해보면, 작품의 주인공들은 종국에는 '죽음과 노화에 대한 에코적 인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리적 안정' 찾기에 애쓰는 모습들이 형상화되고 있다.

5. '사회학적 요인' 관련 노년의 특징

사실 작품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심리학적 관련 노년의 특징과 사회학적 관련 노년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년사회학의 방법론을 거론한 대다수의 학술서적들이 두 가지로 대별하여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되는 이론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사회학적 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는 핵심도구로는 ①배우자의 죽음(질병), ②지위와 역할의 변화, ③자녀의 진수, ④신체적·경제적 의존성 ⑤생활환경의 변화(주거환경 등) ⑥자아정체성·실존성 확보, ⑦사회적 활동의 참여 등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사회적인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퇴직'은 「촛불 밝힌 식탁」이외에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박완서의 작품에는 여성화자가 전업주부로 주로 등장하고 부부가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노년 가난의 문제로 비약하거나, 사회적·심리적 변화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사회노년학의 이론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노년연구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회노년학 이론의 발전이 문화와 관계를 맺으며 발전되

어 왔고 내재되어 있는 서사 구조가 문학에서의 이야기들의 서사구조를 빼어 닮았다는 점이다. 사회노년학이론에서 어떻게 '노년'을 '쇠퇴의 시기', '문화적 황무지',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이러한 부정적 노년의 초상은 바로 미국 사회에 팽배한 개인주의적 문화를 반영한 일종의 '이야기'[19]이기 때문이다. 사회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서사 구조는 종종 상식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의 서사구조와 닮아있다. 사회이론과 이야기의 유사성은 특정이론이 시간에 따른 현상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경우 더욱 더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보통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이론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경험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서사구조를 내장하기 때문이다(Bruner, 1986 : 153).[20] 현재의 의미란 항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연속적 시간의 흐름에서 현재가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해석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노년학이론을 적용하면서 박완서의 작품텍스트에 등장하는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직접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움을 위하여」의 여성주인공 〈나〉는 남편이 죽고 홀로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나〉가 주로 관찰하는 사촌여동생도 나와 마찬가지로 3년 후 남편이 죽은 과부로 형상화되고 있다. 사촌여동생은 여름에 찜통같이 더운 옥탑 방에서 홀로 살아간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교육을 받고 결혼까지 한 큰아들과 며느리내외는 방이 여럿 있는 독채를 전세로 구했지만,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화자 〈나〉에게 운이 좋은 것으로

19) 정진웅, 앞의 책, 32면.
20) 정진웅, 위의 책, 33면.

묘사되며, 사촌여동생에게 같은 과부니까 함께 살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동안 자주 바뀐 파출부 때문에 음식이나 주거적 환경에서 동요가 심했던 〈나〉는 사촌여동생을 극진하게 대한다. 남편이 죽기 전에 경제적 안락함을 가져다주고 남편 자신이 모든 일상을 관장한 관계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따라만 가면 되었던 그녀이기에 〈나〉는 경제적, 신체적으로 점차 사촌여동생에게 ④의존성을 드러내게 된다.

작품에서 사실상 내가 관찰하고 있는 사촌여동생은 ③자녀들을 진수(결혼에 도움을 주어 독립시킴)하지만 홀어머니를 돌볼 생각조차 없자, "괘씸하기 짝이 없음"을 느껴 갈등과 소외감이 극대화된다. 수동적인 〈나〉에 비해 사촌여동생은 억척여성이기도 하지만, 힘이 넘치고 왕성한 에너지를 가진 여성이다. 처녀시절에도 유부남을 유혹하여 결국 이혼을 얻어내고 결혼까지 유도한 인물이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죽자, ⑤주거환경의 변화, 즉 사회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여 생활의 편의를 얻어낸다. 그녀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 여름바캉스 시즌을 맞아 남해 사량도로 내려가 민박집에 기거하며 일을 돕다가 소개팅을 통해 새로운 점잖은 어선을 가진 선장을 맞아 열애에 빠진다. 이러한 사실을 전화통화를 통해 알게 된 〈나〉는 경탄을 금치 못하지만 결국은 그녀의 ⑦미래 생애 설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놀라움과 반전의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결국 〈나〉는 그녀와 만나 싱싱한 바닷사람이 되어가는 것(자연성 획득)을 목격하고는 "상전의식을 포기한 대신 자매애를 찾게 된다"[21]는 결론이다. 작가 박완서는 주인공인 〈나〉대신에 그녀가 관찰하는 여성인물을 등장시켜 미래의 노년인생에 새로운 설계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독자들에게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과 상생하는 '생태학적 인식의 실천'인 것이다.

21) 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 39면. 앞으로 작품면수만 표시한다.

> 영감님 참 좋은 사람이야. 집문서 옮겨주고도 천만 원짜리 통장도 내 이름으로 해줬어. 그밖에 적금도 하나 들어줬구. 그 나이에도 우리 섬에서 가장 고기 잘 잡는 어부야. 물메기는 무진장 잡아. 때가 되면 도미도 많이 잡는데, 시커먼 도미 말고 금붕어 같은 도미 말야. 도미 잡으면 내가 택배로 부쳐줄게. 언닌 맛있는 것만 좋아하잖아. 그 사람 그런 거 안 아껴. 올해 물메기가 많이 잡히니까 집집마다 돌린걸. 섬이니까 과부들이 많아. 영감님이 상처하니까 다들 나 안 데려가나 끼룩끼룩 영감님을 넘봤다나 봐. 그런데 도시에서 꽃같이 예쁜 색시를 얻어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샘이 나겠느냐면서 홀어머니들한테 인심쓰라고 물메기도 돌리고 문어도 돌리고 그런다우. 그이 그런 사람이야.[22]

「후남아 밥 먹어라」는 어머니의 치매 소식과 곧 임종할지 모른다는 통지를 받고 미국에서 귀국한 막내딸인 '앤(후남)'이 겪게 되는 어머니의 일시적인 인지능력 회복과 '진정한 화해'를 핵심적 서사구조로 지니고 있는 단편소설이다. 겉으로의 주제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치매'라는 병의 무서움을 소개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하나 놓기를 기대하며 막내딸을 낳아 실망한 뜻으로 '후남'이란 이름을 지어 평생의 상처를 준 어머니와 막내딸 후남과의 진정성 있는 화해를 내세운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상처투성이였던 '후남'은 친척소개로 도피하다시피 재미교포 식당지배인인 남편을 만나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다. 그의 미국생활은 순탄했고 선진국인 미국생활의 정착성공을 과시하고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해 한국 형제자매들에게 선물공세를 펼친다. ②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③미국에서 자녀들을 진수하고, ④남편덕분에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노년에도 의존성을 벗어나는 사회적인 특성을 보여주지만, ⑥자아정체성 확보

22) 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 38면.

에는 실패하고 물에 기름 뜨듯이 부유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서울 인근 농촌의 이모 댁에 팽개치듯 버려진 채 기거하는 치매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 '후남아 밥 먹어라'라는 어릴 때 듣던 정감어리고 따뜻한 호명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밥'은 근본적인 욕구보다는 '소통'을 상징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 아버지 장례 때도 이모를 본 것 같지 않고, 그 후 한국에 머무는 동안도 이모 소식을 들은 것 같지도 궁금해한 것 같지도 않다. 여태까지의 그런 무관심 때문이었을까. 어머니가 거기가 있다는 게 생뚱맞게 들렸다. 이건 구박이 아니라 유기라고 생각했다. .....(중략).....
>
>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
> 백발의 어머니가 젊고 힘찬 목소리로 악을 쓰고 있었다. 하여튼 우리 엄마 밥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해. 아들 자식을 원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딸들 앞에서 아들을 특별대우할 때도 변명처럼 말하곤 했다. 야아는 제삿밥 떠놓을 애니까라고. 아아, 가엾은 우리 엄마. 그녀는 달려오는 엄마를 한길 가운데서 맞이했다.
>
> "어디 갔었냐. 밥 뜸 드는데. 야아는 꼭 끼니때면 싸돌아다닌다니까."
>
> 그것도 어려서 많이 듣던 소리였다.
>
> "엄마 나 알아? 나 후남인 것,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
> "야아가 에미를 놀리네. 밥 다 타겠다. 어여 가자."[23]

「촛불 밝힌 식탁」은 시골의 초등학교 교장을 정년퇴임한 〈나〉가 직접 겪게 되는, 잘 키운 아들 내외의 노인홀대를 사실적으로 다룬 이야기이다. 〈나〉는 ①배우자를 잃거나 질병에 몸이 퇴락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으로 인한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남성노인이다. 즉

23) 박완서, 「후남아 밥 먹어라」, 131-140면.

〈나〉는 ②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실감하는 동시에 ③자녀들을 진수하여 사회적으로 성공시켰지만, 오히려 며느리로부터 냉대를 받고 '노인소외'의 갈등에 휩싸여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④〈나〉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는 아들내외의 아파트와 합쳐 동거하려고 하는, 노후의 신체적 경제적 의존성을 드러내지만, 야멸차게 그의 제안을 거부하는 며느리의 항거에 ⑥실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아들내외와 타협한 것이 학군 좋은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의 앞뒤 동을 구입하여 따로 살면서 부모-자식 간의 소통(아파트 불빛 확인)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⑦그마저도 아내의 전통음식 별미를 배달하려고 하는 소박한 소통매체마저 거부하고 묵살하는 며느리의 행태에 좌절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해 나간 고교동창모임에서 그동안 세상이 변한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촛불 밝힌 식탁」은 평소에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 풍자하거나 아이러니의 기법으로 비꼬면서 힐난했던 작가 박완서 특유의 사회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 나는 아들네로 음식 해 나르는 재미로 새록새록 살맛이 나보이는 아내가 측은하고도 불안해 여보, 넘치는 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우, 하고 넌지시 귀띔을 하곤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매일 그 짓을 하고 싶어했을 것이다. 가끔 허탕을 치고 올적도 있었다.....(중략).....
>
> 어느 날 저녁, 그날은 마누라가 아들을 위한 별식 같은 걸 한 날도 아닌데 나는 슬쩍 산책 나가는 척 혼자 나가 맞은편 아들네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거푸 두 번 세 번 눌러보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낌으로 안에서 웅성대는 인기척과, 현관문에 달린 동그란 렌즈가 비정한 외눈으로 변하는 걸 알았다.[24]

24) 박완서, 「촛불 밝힌 식탁」, 91-93면.

「대범한 밥상」은 〈나〉의 이야기인 전반부와 여고동창 경실이의 이야기인 후반부로 양분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반부는 ①배우자의 췌장암에 의한 죽음에 이어 유방암이 전이되어 3개월 시한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이야기로 회계사 남편이 죽기 전에 많은 땅을 공평하게 삼남매에게 분배했으나 막내딸의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고 땅을 팔아 사업을 해서 곧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이러한 평지풍파는 땅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형제자매간의 재산분배를 둘러싼 갈등으로 치닫는다. ②이러한 집안 꼴을 보고 〈나〉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유산인 아파트와 약간의 현금을 어려운 막내딸에게 많이 주고 싶으나 실행을 하지 못한다. 남편의 죽음이후 지위와 역할에 약화된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④〈나〉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막상 자신이 말기 암에 걸리자 ⑥실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기력증에 빠져든다.

후반부는 ⑦내가 여고동창 모임에 가서 들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해괴망측한 동거를 하여 동기들로부터 입방아에 오른 절친 경실을 만나러 시골집으로 찾아가서 왜곡된 설화(舌禍)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발견하면서 콩가루 집안인 자신 가족들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경실은 참척의 아픔을 겪은 여고동창 중에서 가장 불행한 노년여성이다.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외동딸 내외가 비행기폭발로 돌연사를 하게 되자, 경실은 아이들을 돌보고 사건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애원으로 지방공무원 주사로 근무하는 사돈영감과 합쳐 살림을 차려서 스캔들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짧은 단편이지만 급전 - 발견-파토스라는 탄탄한 서사구조를 지닌 이야기다. 〈나〉는 자연친화적인 인식의 전환을 보이는 경실의 담담한 화술과 놀라운 세계관 변화에 오히려 설복당하고 경실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간다.

「대범한 밥상」은 ⑤인생의 아이러니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진실성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⑦'나락에서 극락으로' 대전환을 이룬 노년여성의 적극적인 삶의 지혜로운 의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 "철판은커녕 의식도 안 하고 이 집 안방에 드러앉게 됐다면 어쩔래. 정말이야. 내 동기간들도 처음엔 나를 죽기 살기로 말리다가 나중엔 내가 실성한 줄 아는지 한동안 연을 끊고 살다가 관계가 회복된 지금까지도 그동안의 내 행적을 무슨 미스터리처럼 궁금해하니까 너도 나한테서 뭘 알아내고 싶어하는지 왜 모르겠어. 군둥내 나는 짠지 국물 그만 마시고 딴 반찬도 좀 먹어봐라. 곤드레나물도 괜찮지만 씀바귀 민들레잎도 된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야." .....(중략).....
>
> 좀 안정된 후에는 유치원도 가라면 갔지만, 전엔 유치원 버스만 태워주면 혼자 다니던 애가 꼭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한 사람이 따라와서 지키고 있길 바랐고, 가끔 놀이방에 맡기던 계집애도 놀이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려고 하고. 이게 쇠사슬이지 이보다 더한 쇠사슬이 어딨냐. 그렇지만 집 안에 마냥 묶어둘 수만 없는 게 남자 아니겠어. 그 양반은 그때 아직 현직이었거든. 그래도 좀 철이 난 아녀석을 붙들고 설득했지. 할아버지는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빠도 없으니 할아버지라도 돈을 벌어야 하고. 할아버지 직장은 서울에서 다니기 멀다고. 그랬더니 글쎄 아녀석이 선심 쓰듯이 흔쾌히 승낙하면서 다 같이 시골로 내려가자는 거야.[25]

「친절한 복희씨」는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부부사이의 폭력성에 대해 고발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위선과 허위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한 작품이다. 〈나〉는 ①중풍에 걸려 반신불수인 남편을 돌보면서 중풍으로 손발도 제대로 못 쓰는 환자가 변태적 성욕을 드러내자 그동안의 자신의 왜곡된 삶을 반추해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단계를 넘

25) 박완서, 「대범한 밥상」, 223-225면.

어서서 남편에게 살의를 표출한다. 〈나〉는 남편을 껴안고 한강다리에서 강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까지 드러낸다. 이 작품은 성폭력이나 강간이라는 성범죄를 폭로하는 이야기이므로 노년사회학에서 흔히 제시하는 성격적 특징에서 많이 벗어난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항상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노년의 여성화자인 〈나〉가 남편이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자, 남편의 몸을 돌보며 통렬한 복수를 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울분을 토해낸다. ⑦〈나〉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인생의 아이러니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진정성에 대해 통찰하게 된 것이다. 친척 대학생이 잠시 집에 함께 살게 될 때에 부엌데기로서 손이 튼 것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대학생이 글리셀린 약병을 건네준 것을 떠올린다. ⑦그 순간 〈나〉는 물이 오른 '한그루의 박태기나무'가 된 것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내가 남편을 만나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어쩔 수없이 결혼하게 된 과정에 대한 '회상'에서는 노년사회학이론의 성격적 특징을 드러낸다. 〈나〉는 ①남편에게 강간을 당한 정신적 트라우마(질병)를 가진 노년여성이다. 내가 자주 친정에서 들고 나온 생철갑(독약에 가까운 양귀비 마약)을 꺼내 확인하는 강박관념에서 질병은 확인이 된다. 따라서 ②〈나〉는 나락에 떨어진 천덕꾸러기로 살아간다. ③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들까지 5남매를 키우고 자녀 진수를 시키면서 삶의 위안을 삼는다. 따라서 〈나〉는 ④남편에게 평생 끌려 다니는 '신체적·경제적 의존성'을 드러낸다. 〈나〉는 심지어 돈을 많이 벌어오게 해서 자녀에게 고등 교육을 시켜 정신적 보상을 받으려고, 남편의 변태적 성욕의 희생자가 되기까지 하지만, 장성한 자녀들로부터도 홀대를 당하자 무력감에 빠진다. ⑥〈나〉는 자아정체성 확보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⑤〈나〉에게 인생의 반전이 기적적으로 일어난다. 남편이 중풍을 앓게 되어 쓰러져 자신에게 몸을 맡긴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입술을 오므리지 못하니까 나를 '복희야'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입가에 심한 경련이 인다. 나는 그게 불쌍하지 않고 고소하다. 처녀 적 그의 집에서 식모살이할 때부터 함부로 부르던 이름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의 마누라가 된 후에도 기분이 좋을 때나 화가 날 때는 연달아 불러대곤 했다. ..... 원래 기운이 넘치는 장대한 남자였다. 개같이 벌어서 짐승처럼 쓰는 게 이상인 단순한 남자가 늙고 병들어 썩은 포대자루처럼 처져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측은하단 생각이 들기보다는 기괴한 환상에 시달린다. 저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거침없이 말할 때도 그의 생각은 주로 욕망에 관해서였다. 물욕, 식욕, 성욕이 남보다 강하고 그걸 표현하는 데 망설임도 수치심도 없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런 욕망을 채울 길이 막혀버린 지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중략).....

"공일이 닷새 든 달도 있던데 그런 공일날엔 뭐 할 거냐. 네 집이 모여서 얼씨구 소풍이라도 가지 그러냐."

"어머님도 참, 우리도 스트레스 안 받는 날도 좀 있어야죠. 그게 그렇게 억울하시면 미국 있는 시누님을 다달이 부르시든지요."

요렇게 싸가지 없는 며늘년을 내가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시어미라 해도 어떻게 안 싫어하겠는가.[26]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는 작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이다. 〈나〉는 ①남편의 죽음이후 하나있는 막내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삶의 의미를 잃고 상실감에 빠져든다. 평소에 경제적 운용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겼던 〈나〉는 ②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③1남 4녀인 자녀를 진수시켰지만, 남편에 연이은 아들의 죽음은 무기력증을 도지게 할 뿐이었다. ⑦그녀는 평소에 좋아하던 영화도 구해보고 노년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해외여행(사회적 활동 참여)도 떠나보지만, 마음의 공허함

26)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240-245면.

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현실도피로 떠난 몇 차례 목적 없는 해외여행에서 ⑥흔히 생애과정이론에서 많이 거론하는 "지난 이십년 동안의 설렘도 목적도 없는 여행이 다 고래 뱃속 안에서의 헤맴이 아니었을까."를 깨닫고, 오랜만에 내 땅에 첫발을 디딘 착지감에서도 "눈 감고도 느낄 수 있는 첫사랑과의 터치처럼 에로틱하기조차 했다"[27]는 황홀경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자아정체성, 즉 '실존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즉 〈나〉는 팔십년의 인생이 바로 죽음으로 다가서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인식하고 조급함과 무력감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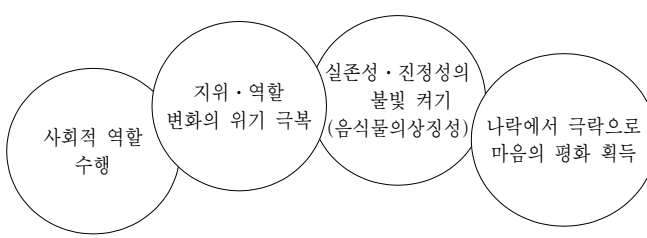
> 나는 돈계산도 잘 못하고 재테크라는 것에도 소질이 없어서 식구가 느는 것에 맞추어 집을 늘리는 것도 남편이 알아서 했다.....그 걷잡을 수 없는 욕구는 증언의 욕구였다. 6.25 때 오빠하고, 끝내 자기 자식을 두지 못해 나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삼촌이 비참하게 죽었다. 남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가 있는 동안 남아 있던 우리 식구들은 강제로 찢기고 일부는 북으로 끌려가야 하는 고난을 겪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인들 안 당했겠는가.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언젠가는 저자들을 악인으로 등장시켜 마음껏 징벌하는 소설을 쓰리라는 복수심이었다. .....(중략).....
>
>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 찾는 아래층에 안전하게 발을 디디자 비로소 고래 뱃속을 빠져나왔구나, 하는 현실감이 왔다. 이번 여행길을 통틀어 방금 내린 비행기까지가 다 고래 뱃속의 일로 여겨졌다. 어쩌면 지난 이십년 동안의 설렘도 목적도 없는 여행이 다 고래 뱃속 안에서의 헤맴이 아니었을까.[28]

27) 박완서, 석양에 등을 지고 그림자를 밟다」, 43면.
28) 박완서, 위의 글, 31-43면.

번호	작품(발표연도)	시점	배우자의 죽음 질병	지위와 역할의 변화	자녀의 진수(갈등·소외)	퇴직(직업적 역할 상실)	신체적·경제적 의존성	(생애과정이론) 자아정체성 실존성확보	생활환경의 변화(주거환경)	사회적 활동의 참여
1	「그리움을 위하여」(2001.2 현대문학)	1인칭관찰자	<나>남편죽음 사촌여동생 남편죽음	남편 죽음(석양동일)->동반추락 무기력증	사촌여동생 큰아들 내외 독채전세->쾌씸하기 짝이 없음		<나>사촌여동생에 정신적·육체적 의존	사촌여동생->자아정체성 획득	사촌여동생 과출부·식모->능동적 삶(재혼)	사촌여동생->파산->파출부
2	「후남아 밥 먹어라」(2003. 여름 창작과 비평)	3인칭 관찰자	어머니 치매	재미교포->우월감->정체성 위기 열등감	딸로서 소외, 외국 삶->자녀 출가 어머니와의 화해		독립적	<앤·후남이>->어머니의 호명으로 정체성 확보	미국->한국으로 회귀	미국에서의 정착 성공
3	「촛불 밝힌 식탁」(2005. 동아일보사)	1인칭 관찰자	소멸과 생성 <나>암 말기(유방) vs 남편 췌장암 경실	남편-땅부자/땅 3남매 분배 후 갈등 -> <나>의 재산분배	3남매 출가 장성->재산분배갈등 소원해짐		독립적	경실=인생의아이러니 속에서(진실성·진정성)찾음	경실 서울->시골(자연)	나락->극락으로 적극적 삶의 지혜로운 의지
4	「대범한 밥상」(2006.1 현대문학)	1인칭 관찰자	<나>교장퇴직 상실감·무력감	교장 퇴직	자녀 결혼 아파트 구입 해줌->세대갈등/노인소외	교장 퇴직 직업적 역할 상실	독립적->자식에게 버림 받음	무기력한 의존 벗어나 실존성의 '불빛' 켜기	시골 퇴직->서울 아파트	동창모임 통해 세상의 변화 공부
5	「친절한 복희씨」(2006. 창작과 비평)	1인칭 주인공	<나>강간 희생자 정신적 트라우마 vs 남편 중풍	천덕꾸러기->남편 중풍(아이러니) 인생 반전	·자녀 오남매 대학·출가 ·세대갈등 소외		남편 중풍 자녀 출가 성공->무력감·갈등	인생의 아이러니 속에서 참혹한 악덕·위선·허위 발견	버스차장 목표상경->점원/식모->임신·결혼/폭력성에 희생->반전	아이들 교육, 남편 병간호->진정성 통찰
6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2010,『기나긴 하루』)	1인칭 관찰자	남편·아들죽음 <나>상실감·무력감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 운용 남편 죽음->무기력증	자녀 출가-> 아들의 죽음 무기력증		독립성 동요	현세 삶의 추락 속에서 마음의 평화·큰 사랑, 실존성 회복	서울 인근 거주->떠돌이 여행->실존성 되찾음	·글쓰기·여행 통해 참의미깨달음

〈도표3〉 사회학적 관련 특징

사회노년학 이론으로 분석한 특성을 요약하면, 「그리움을 위하여」를 비롯하여 여섯 작품의 사실상 주인공은 거의 모두 '여성화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의 작품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지위·역할의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아래 〈도표4〉에서 원의 링을 연결한 이유는 개별 작품에서 주인공의 사회적 역할의 수행과정이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개별 작품에서 주인공이 시도하는 수행과정은 모두가 다르다. 「그리움을 위하여」에서 여성화자는 남편이 죽자, 파출부로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후남아 밥 먹어라」에서의 재미교포 여성화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삶을 맴돌고 있으며, 「촛불 밝힌 식탁」의 화자는 자녀에 의한 '노인소외 현상'에 부딪쳐서 노인부부만의 실존성의 불빛을 켜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한다. 또 「대범한 밥상」의 여성화자의 친구인 경실은 나락에서 극락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삶의 지혜를 모색한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의 여성화자는 남편의 죽음과 연이은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글쓰기와 해외여행이라는 지연 전략을 구사해보며,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진 「친절한 복희씨」의 여성화자는 자녀교육에 매달려 보상심리에 기대려고 하는 동시에 성 의존증 환자에 가까운 중풍 걸린 남편의 악덕에서 탈출구의 환상을 꿈꾸기도 한다.



〈도표4〉 '사회적 요인' 관련 특성

즉 여성화자 모두가 현실의 나락에서 극락을 끌어내기 위해, 실존성의 불빛을 꺼내들어 '진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다. 한마디로 어둠의 사회현실에서 빛을 추구함을 통해 '큰 사랑'과 입맞춤을 하는 편안함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화자들이 '생명력' 자체를 삶의 동력을 찾는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생명력'의 상징을 모두 음식물(약물 포함)로 잡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물메기, 도미', ' 밥', '청국장', '씀바귀, 짠지', '양귀비, 비아그라', '강된장, 흰죽'은 여성 화자에게 생명력을 되살려주는 원동력이다. 그것은 바로 작가가 자연의 생태인식에 대한 통찰력에 눈을 뜨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노년문학을 다루면서 작가 자신이 박완서 특유의 '상생의 글쓰기'로 귀결되고 있음을 눈치빠른 독자들은 인지하게 된다.

6. 맺음말

박완서의 밀레니엄 시대에 창작한 작품들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많이 구사되고, 여성화자인 노년여성이 많이 등장하며, 주인공이나 관찰대상인 인물이 모두 치매・중풍・암・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을 형상화하면서 작가는 현실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글쓰기'를 시도하는 점이 돋보이며, 박완서 특유의 유머와 아이러니의 문체를 구사하는 점도 눈에 뜨인다.

또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질병을 앓고 있는 노년의 여성 화자를 등장시키면서 여성적 소통방법인 '밥과 음식 나눠 먹기'를 소통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멸과 생성의 상징인 붉은 노을,

불빛, 밝은 톤의 색채감('노란 은행잎이 푸른 잔디 위로 지는 곳, 섹시한 어부가 방금 청정해역에서 낚아 올린 분홍빛 도미, 자지러지게 붉은 단풍 등)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약물(비아그라 vs 양귀비)이나 몸살·독감·폐렴 등의 가벼운 질환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반복해서 병치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수사기교가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여섯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박완서 노년문학의 특징은 크게는 '부정적 인식과 소멸하기'를 드러내는 글쓰기와 '긍정적 인식과 대안 모색의 글쓰기'로 대별된다. 첫째의 경우, ①세대 간 갈등(「촛불 밝힌 식탁」), ②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후남아 밥 먹어라」), ③배제와 편견(「대범한 밥상」), ④상실과 무력감(「그리움을 위하여」), ⑤폭력적인 성적 욕망과 인고의 삶(「친절한 복희씨」), ⑥기억과 망각(「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의 사회적 문제성을 던져주는 비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둘째, 작가 박완서는 노년문학을 통해 삭막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하지 않고 노년의 '모범적인 노후설계'(「촛불 밝힌 식탁」, 89쪽) 에 대한 대안도 모색한다. 그러한 방법론으로는 ①황혼의 성숙한 통찰을 통한 자아의 정체성 획득, 즉 실존성 확보, ②관계 단절과 소외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관계 맺기와 손잡기'라는 소통의 방안 추구, ③자연과의 친화성을 통한 생태학적 인식, ④모성적 생명력의 한계와 상생 도모, 즉 '순응과 상생'의 세계관 모색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에 주로 출간된 박완서 노년문학은 이전의 '망각과 기억하기'를 토대로 한 '회상과 분노의 글쓰기(증언하기)'를 벗어나 '거듭된 회상의 글쓰기' 단계에서 '포용의 글쓰기'를 거쳐 '상생의 글쓰기'로 지평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아무래도 작가 자신의 연령이 65세라는 노인을 훌쩍 넘어 70대로 접어든 시

기에 바라본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면모는 작가의 유작으로 평가되는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2010)에서 "어쩌면 지난 이십년 동안의 설렘도 목적도 없는 여행이 다 고래 뱃속 안에서의 헤맴이 아니었을까"(43쪽)라는 깨달음이나 "그의 생명은 아무하고도 바꿔치기할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우주였다는 게 보이고, 하나의 우주의 무의미한 소멸이 억울하고 통절했다. 그게 보인 게 사랑이 아니었을까."(33쪽)라는 분명한 범우주적인 인식에서 확인이 된다.

■ 참고문헌 ■

1. 작품텍스트

박완서 외 여성작가 17인 신작소설, 『촛불 밝힌 식탁』, 동아일보사, 2005.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문학동네, 2007.

_____,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기나긴 하루』, 문학동네, 2012

2. 연구 논저

간호옥,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박완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11호,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출판부, 2001.

김미숙 외,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미영, 「한국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 -최일남, 박완서, 이청준, 홍상화, 김원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 64호, 2015.

_____, 「소설에서의 치매 서사의 수용」, 국어문학 제63호, 국어문학회, 2016.

김미현, 「이 노년을 보라」, 문학과 의학 7호, 문학의학학회, 2014. 2.

김병익, 「험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박완서의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 지성사, 2009.

김보민,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성 -김원일, 박완서, 한승원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2017.

김영택 · 신현순, 「박완서 노년 소설 연구-동거자와 여성 노인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68집, 2011.

김윤식 · 김미현 엮음, 『소설, 노인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김수영, 모선희, 원영희, 최희경, 『노년사회학』, 학지사, 2009.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수행성을 중심으로』(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2)

_____,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역락, 2013.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3호, 한민족어

문학회, 2013.

_____,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70호, 한국 문학연구회, 2015.

김형석, 『백년을 살아보니』, Denstory, 2016.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1)

박산향,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19권 제2호, 2018년.

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한국문화기술 제15호,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3.

박재간 편,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푸른북, 2003.

박창제 외, 『복지국가의 고령자 보건의료정책』, 공동체, 2008.

박혜란, 『다시, 나이듦에 대하여』, 웅진지식하우스, 2010.

백지연, 「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동서문학』, 1999년 봄호.

송명희, 「노년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 -박완서의 「마른꽃」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 24-1호, 대중서사학회, 2018.

오준심·김승용,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갈등 연구」, 한국노년학 제29-4호. 한국노년학회, 2009.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어문논총』 5, 숙명여자대학교, 1995.

이경란, 「노년은 타자이기만 한 것인가 : 여성 노년소설의 노년과 성숙」, 『젠더 하기와 타자의 형상화』, 이화인문과학원 편, 2011.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1945~1990), 민음사, 1991.

이희경, 『박완서를 읽다』, 도어즈, 2016.

전흥남, 「박완서 노년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제42집, 국어문학회, 2007. 1.

_____, 「박완서 노년 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Ⅱ)」, 『국어문학』 제49집, 국어문학회, 2010. 8.

정미숙, 유제분, 「박완서 노년 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제54집,

2010.4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06.

조성남, 『에이지붐 시대 -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대 출판부, 2004.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연구』(경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5)

최성재 · 장인협, 『노인복지학』(제2개정판), 서울대출판부, 2006.

현외성, 『노인복지학 신론』, 양서원, 2010.

홍숙자, 「노년학개론」, 하우, 1999.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편, 『고령사회의 이해 - 노년과 사회』, 소화, 2010.

시몬 드 보부아르, 『노년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 홍상희, 박혜영 옮김, 책세상, 2002.

폴 어빙 엮음,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김선영옮김, 아날로그,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old aging Literature in Park Wan-seo's Works —Focused on Psychological Sociological Theory—

Park, Tai-Sang

Applying the methodology of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theories of the elderly to six episodes including “About the longing” (“Modern Literature”, 2001. 2), a piece created after entering the aging society of Park Wan-seo's short stories.

In Park Wan-seo's literature, it is interesting to see the female speaker of old age who is suffering from illness while using the communication method of “sharing rice and food”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The red glow, the symbol of extinction and creation, A bright tone of color (yellow ginkgo leaves on green grass, sexy fisherman just pink sea breams caught in the clean waters, red leaves of chestnuts, etc.), drugs (Viagra vs. poppy), And mild illnesses such as body aches, flu and pneumonia, and how to repeatedly juxtapose diseases that lead to dea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x works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Park Wan - seo's old aging literature are largely divided into writing that reveals ‘negative perception and annihilation’ and ‘writing of positive perception and alternative seeking’. In the first case, there are two types of conflicts: ① intergenerational conflict (“candle-lit dining

table”), ② cultural conflict and identity confusion (“eat rice, Hunam”), ③ exclusion and prejudice (“About the longing”), ⑤ a violent sexual desire and a life of perseverance (“friendly Bokuhe”), and ⑥ a sense of criticism that throws the social problem of memory and oblivion (“stepping on the sun at sunset”).

But secondly, the author, Park Wan-seo, does not concentrate only on the criticism of the social reality, but also finds alternatives to the “exemplary old aging design” (“Candle-lit dining table”, p.89.) Such methodologies include ① acquisition of the identity of the self through the mature insights of twilight, ② securing of existence, that is, seeking a communication method of “establishing a relationship and catching up” to overcome the disconnection and alienation, ③ the affinity with nature And ecological awareness through the use of the word “ecology”, and ④ the limits of maternal vitality and the pursuit of coexistence, that is, seeking a world view of ‘adaptation and coexistence’.

Key words: Aged society, Park Wan-seo's old aging literature, negative perception and annihilation, positive perception and alternative seeking, old aging Literature, Writing of Hatch, Psychological Theory of Gerontology, The development task theory of the Havinghurst, Sociological Theory of Gerontology, Activity theory, Sustain theory, Life course theory, Healthy aging, Perform various social roles, Securing existence, acquiring peace of mind, Writing a Mutual Life, exemplary old aging design, Ecological perception through affinity with nature

투 고 일 : 2018년 10월 30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